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총괄 | 이강수(광주교육정책연구소장)
연구기획 | 최종순(광주교육정책연구소 장학사)
연구책임 | 강 석(광주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공동연구 | 송명희(송우초등학교 교사)
심수정(신가초등학교 교사)
이정순(불로초등학교 교사)
양은숙(문화중학교 수석교사)
이윤희(광주과학고등학교 교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GwangJu Educational Policy and Research Center

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성 현황과 제고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원칙, 내용, 현황 등을 살펴본 후 전문가 집단 면담(FGI)을 실시하여 민주 시민교육을 위한 실제 학교 현황 및 문제점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제고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1.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현황 및 문제점

○민주시민교육: 변하고 싶지 않은 교사

교사들은 수업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수업을 다른 동료교사와 나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자치를 권장하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방해자가 되기도 하고, 학생을 교육의 대상보다는 규칙에 따라야 하는 통제의 대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세밀함이 부족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교사 자신이 민주성과 주체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많지 않아 학생들과 함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어렵고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 밖에 학급 자치에 대한 실패의 경험만을 가지고 있고 성공의 경험이나 교육을 받은 경우가 흔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동료교사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위는 학급이다. 그러나 현실은 소수의 학급만이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급은 아직 한 교사의 고유한 영역으로 비민주적인 학급 운영을 하더라도 관여할 수 없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학급 간 소통과 협력의 문화는 아직도 낯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교사들 간의 공감이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적 가치에 대한 동의가 없는 환경에서 학교나 동료의 도움 없이 일부 개별 교사가 일부 교과목에서 또는 일부 학교 행사를 중심으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동료 교사들이 학생의 자율성 신장이나 시민성 실천 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불편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해하기도 한다.

○약화된 학생자치

학급회의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 민주주의 경험의 아주 작은 기회조차 없어지고 있고, 학생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회가 유명무실해지거나 대학입시 준비에 필요한 스펙 쌓기 도구가 되어 학생 자치회의 기능이 약해졌다.

○아직 변하지 않은 학교 문화

수직적인 관계로 경직되어있는 위계질서로 인해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위축되어있는 이러한 학교 문화는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학생을 학교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통제와 관리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교사가 학습 내용의 과다와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너무 바빠서 시민교육을 실천할 시간이나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제고방안

○학생과의 관계 전문성

민주시민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학생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 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고, 일상생활 속 학생들과의 만남 안에서 학생들의 말에 공감해주고 존중해주는 것과 학생들이 결정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나 권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학생들 스스로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거나 학급회의 등을 통해 찾아낸 생활 속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수업/학급/학교 운영의 전문성

교사가 아이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들어주고 아이들 각자가 학급에서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토론과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하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등 학생의 주체성을 키워줄 수 있는 민주적인 수업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학급이라는 자치 조직 안에서 정기적인 학급회의 시간을 마련하여 자신의 의사표현을 해보고 급우들과 함께 토론과 협의과정에서 상호이해, 공감, 존중과 같은 민주시민성이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 회장 선거 자체도 좋은 실천 방법이며, 학생회 고유의 공간과 예산을 주어서 학생들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여 학생회 자치 활동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자아성찰과 동료와의 관계 전문성

교사 자신이 민주적인가를 자문해보고 실천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조금씩 변화해 가려는 반성적 실천을 통한 자아성찰이 필요하고, 교사들 간 협의는 서로 배움을 주고받는 협력적 관계를 향상시키고 자기발전의 기회도 되며, 학교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개선

연수프로그램의 경우 교사가 직접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고 실천해보는 형태로 바뀌어야 하며,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학교문화를 서로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장 공모제 확대나 선출보직제 등 승진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내적인 보상이나 외적인 보상이 있어야 하며, 민주시민교육 원칙 수립 과정에서 구성원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수립된 원칙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 사회 자체가 총체적인 교육의 자원이므로 지역과 학교가 협력관계를 만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정책적 제언

○민주시민교육 방향과 비전 공유

민주적인 학교로의 변화 필요성을 동료 교사들과 함께 논의하며 비전을 세우고 나누는 과정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비전 공유이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리더와 조직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

○갈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 능력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데는 서로 부딪히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실패의 경험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필수 과정이다. 교사는 조직 문화나 제도 등의 변화 과정을 잘 이해해야 하고 모든 변화의 과정에서 저항과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갈등의 기능을 잘 이해하여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아성찰

교사 자신이 민주적인가를 자문해보고 스스로 조금씩 변화해 가려는 반성적인 실천을 통한 자아성찰이 필요하다. 수업이나 학급과 학교 운영에 있어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성찰하고 반성적 사고를 하거나 동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 학생과의 소통 능력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 대해주고 학생에 대한 공감과 배려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주어야 한다.

○ 수업/학급/학교 운영의 전문성 신장

수업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생이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천성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학급자치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부서 체계에 대한 이해, 학급회의의 역할에 대한 이해 등의 지식적인 전문성을 키우는 것과 함께 실제로 학급자치를 직접 실천하면서 배우는 학급자치 운영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학생들의 자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 등을 통해서도 협동과 배려, 자율성과 소통 등을 체득할 수 있기에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 동료교사와 소통과 협의 문화 조성

교사들 간 협의는 서로 배움을 주고받는 협력적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하고, 자신의 수업이나 생활지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학교의 공동체 형성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에 자발적으로 협의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 제도 개선

교사가 직접 조작해보거나 실천을 통해 배워 실제 수업과 활동에 활용이 가능한 참여형 연수로 바뀌어야 하며, 승진제도를 개선하여 교장 공모제나 교장선출보직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해주는 등의 내재적인 보상이나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외재적인 보상을 줄 필요가 있다.

Contents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5
4. 연구 결과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8
II.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9
1. 시민교육 vs. 민주시민교육	11
2.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12
3. 왜 민주시민교육인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13
4. 민주시민교육의 원칙	15
5.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17
6. 민주시민교육 현황	19
III. 민주시민교육과 교사	21
1.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인식과 실천	23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24
IV.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현황 및 제고방안	27
1.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현황 및 문제점	29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제고방안	48
V. 결론 및 제언	67
1. 결론	69
2. 정책적 제언	70

표목차

〈표 1〉 현직연구원 협의회	5
〈표 2〉 전문가집단 면담에 참여한 참여자 특성	6
〈표 3〉 전문가집단 면담 현황	7
〈표 4〉 시민교육의 두가지 의미	13
〈표 5〉 민주시민 교육 내용	18

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이라는 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공간이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환경을 통해서 민주시민의 의미와 내용을 배우고 실천하며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배우고 체험하게 된다. 한편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그리고 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교사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체일 수밖에 없다. 학생의 민주시민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의 민주시민성을 이야기하고 교사의 민주시민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단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원칙이나 제도적인 측면 또는 학교 전반적인 문화의 변화나 교육과정 안에서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전문성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민주시민교육에서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의 전문성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제 2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유사성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왜 시민교육 대신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본 후,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몇 명의 국내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 개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현 시점에서 왜 민주

시민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였고, 민주시민교육의 원칙과 민주시민교육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사의 인식과 실천 현황을 살펴본 후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사에게 어떠한 전문성이 필요한지에 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제 4장에서는 전문가 집단 면담(FGI)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현황 및 문제점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제고방안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현황 및 문제점에서는 1)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에는 수업, 학생과의 관계, 학급 운영,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 등에서 준비가 부족한 교사, 2) 서로 간의 소통 부족과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동료교사, 3) 약화된 학급자치와 학생회로 드러난 무기력한 학생자치, 4) 아직도 수직적이고 경직되어 있고, 학생이 주인이 아닌, 바빠서 여유가 없는 학교 문화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제고방안에서는 1) 학생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학생에 대한 이해, 공감과 배려를 보여주며 참여와 권리 보장,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하게 도와주는 등 교사의 학생과의 관계 전문성, 2) 수업에서의 학생 참여와 동아리나 자유학기제를 활용하는 방법, 학급회의와 학생회의 활성화 등의 수업/학급/학교 운영의 전문성, 3) 자기성찰과 소통 능력, 동료교사와의 관계성 회복 관련 전문성, 4)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 중심의 프로그램이나 승진제도 개선,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 배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원칙 수립과 공유,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유지 등 제도 개선 등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5 장에서는 분석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 연구와 문헌을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민주시민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민주시민교육에 들어가는 내용과 영역에 관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나. 현직연구원 협의회

연구 진행을 위해 6명의 현직연구원¹⁾과 7회에 걸쳐 연구 관련 협의회를 실시하여 민주시민교육 관련 자료를 읽고 토론하며 학습하고 연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 1〉 현직연구원 협의회

	날짜	참석 인원
1차	2017년 3월 10일	5명
2차	2017년 3월 20일	6명
3차	2017년 3월 30일	5명
4차	2017년 4월 13일	6명
5차	2017년 5월 16일	4명
6차	2017년 6월 8일	5명
7차	2017년 6월 27일	5명

다. 전문가 집단 면담(FGI)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을 알아보고자 전문가 집단의 면담(FGI)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주체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1) 광주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년 초에 각 연구별로 5명 ~ 6명을 학교 현장에서 선발한 공동연구원으로 일과 시간 이후에 본 연구에 함께 참여하고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6명의 현직연구원이 참여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1명이 휴직하여 현직연구원에서 제외되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교육청 해당과 담당자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활성화를 지지하였다.

교사들과의 전문가 집단 면담은 총 4차례에 걸쳐 각각 1-2시간 정도 미리 준비된 질문지를 기본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집단 면담을 통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면서 힘든 점이나 문제점 등을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하였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으며 각자의 경험에 따른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될 전문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1) 참여자 특성

전문가 집단 면담에 참여한 교사는 전체 17명의 교사들 중에서 초등학교 교사 8명(남자 4명, 여자 4명)과 중등교사 9명(남자 5명, 여자 4명)으로 구성되었고, 집단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의 평균 나이는 약 44세로 평균 근무 경력은 약 18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전문가 집단 면담에 참여한 참여자 특성

	이름	성별	학교	경력	답임 여부
1	Y교사	여자	A초	4년 6개월	o
2	J교사	남자	B초	23년	x
3	J교사	여자	C초	17년	x
4	B교사	남자	D초	18년	x
5	O교사	남자	D초	15년	x
6	B교사	남자	E초	14년	x
7	K교사	여자	F초	16년	o
8	B교사	여자	G초	18년	o
9	K교사	남자	A중	10년	x
10	H교사	여자	OO팀	16년	x
11	S교사	여자	A중	21년	x

12	K교사	여자	B중	20년	x
13	J교사	남자	C중	25년	x
14	L교사	남자	A고	26년	x
15	L교사	남자	D중	20년	x
16	K교사	남자	E중	11년	x
17	B교사	남자	F중	26년	o

2) 면담 현황

전문가 집단 면담은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먼저 초등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두 차례 진행하고, 중등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두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전문가 집단 면담에 참여한 교사는 학교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수년간 실천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추천을 받아 선정한 것이다.

〈표 3〉 전문가 집단 면담 현황

면담 인원		총 17명
면담 기간 및 인원		1차: 2017년 9월 18일 (참여 인원: 3명) 2차: 2017년 9월 19일 (참여 인원: 5명) 3차: 2017년 9월 25일 (참여 인원: 5명) 4차: 2017년 9월 26일 (참여 인원: 4명)
면담 대상자 특성	공통요건	민주시민교육 유경험자(정규수업, 정규수업 외 경험, 교사연수 등)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는 교사
	연령	20대 1명 30대 2명 40대 9명 50대 5명
	교직 경력	10년 미만 1명 10년 이상 ~ 20년 미만 9명 20년 이상 7명

	성별	남자 10명 여자 7명
	학교급	초등 8명 중등 9명
	담임 여부	담임 4명 비담임 13명

4. 연구 결과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요구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 주체들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의 사회체계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현황과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민주시민교육 관련 핵심 실행 주체인 교사의 전문성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안을 중심으로 현장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1. 시민교육 vs. 민주시민교육
2.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3. 왜 민주시민교육인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4. 민주시민교육의 원칙
5.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6. 민주시민교육 현황

II.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1. 시민교육 vs. 민주시민교육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공교육의 목표를 민주시민 육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요구에 대한 커다란 흐름이 있었고 내용이나 방법에 한계는 있었으나 1995년 문민정부 때부터는 사회나 도덕 과목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이를 국가교육과정에서 가르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시민교육이라고 하면 당연히 민주적인 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복된 의미의 민주시민교육²⁾이라고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다. 시민교육 내용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특히 민주주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 2008)는 해석과 시민교육이 국가나 자본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시민사회 스스로의 힘이나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주체와 민주화운동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한승희 외, 2003. p. 40). 두 번째 해석과 비슷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시민교육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공민교육과 국가주의적인 국민교육으로 치우쳐 시민교육이라는 말 안에 국가에 순응하는 교육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민주사회를 위한 적극적 시민성을 강조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가 역사적으로 정립되었다(신형식, 2012; 이가영, 2016)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사회 스스로 적극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담아 시민교육 대신에 ‘민주시민교육’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학생과 성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일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2.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 몇 가지를 살펴보면 김성수 외(2015)는 민주시민교육을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현상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비판의식을 갖고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책임지는 정치행위가 될 수 있도록 가정·학교·사회에서 습득하는 모든 과정(p. 8)”으로 설명하였다. 심성보(2011)의 경우는 민주시민교육을 “일상생활의 정치적 차원을 드러냄으로써 참여의 수준을 고양시켜 사람들의 자력화(empowerment)를 통해 학생과 시민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교육(p.184)”으로 정의하였다. 즉, 민주주의의 주체는 시민이며, 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사람들의 민주적 역량과 주체성을 키워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원천이기에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장은주(2017)는 민주시민교육의 초점은 미래의 시민들이 자존감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찾아주고 개발하도록 도와주어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은 좁은 의미의 ‘구성원의 사회화’와 넓은 의미의 ‘주체로서의 시민 양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 협소한 관점의 시민교육인 ‘구성원의 사회화’는 체제에 대한 지식 습득과 질서 유지, 소속감과 역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권리보다는 책임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인 ‘주체로서의 시민 양성’은 민주주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한 사회 정의와 사회적 참여를 지향한다(심성보, 2011, p. 186; 이가영, 2016)고 설명하였다(표 4).

〈표 4〉 시민교육의 두 가지 의미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시민교육	구성원의 사회화	주체로서의 시민 양성
	법이나 질서 준수 소속감과 책임 강조	반성적 사고 비판적 사고
	순종적인 시민 착한 시민	적극적 시민 주체적인 시민

※ 연구자가 심성보(2011)와 이가영(2016)의 표를 기준으로 수정하였음.

위에서 정의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민주시민교육이란 시민의 자존감과 민주적 역량을 키워주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왜 민주시민교육인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실제 한 국가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을 때는 정부의 형태뿐만 아니라 생활방식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교육’(1916)에서 듀이도 민주주의란 특정 형태의 정치나 제도를 뛰어 넘어 경험을 공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이해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민주주의는 외부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유지되거나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공유되어야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결손 민주주의’ 유형을 띄고 있다(장은주, 2014).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대통령 등을 뽑기 위해 국민 투표를 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나 언론의 공정성 등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삼권 분립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어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실천되고 있지 못하는 지배 체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결손 민주주의 유형을 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가 형식적이거나 민주주의 틀을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전쟁 이후 반공교육과 박정희 정권 하에서 새마을교육, 반공교육, 국민윤리교육 등 당시의 기본적인 시민교육 내용은 국가의 정책과 체제 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공민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논의가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였고 김영삼 문민정부(1993년)는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로 삼았다. 그 후로도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민주시민관련 연구는 물론, 학교 교육과정안에도 반영하고 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지식 습득을 넘어서서 삶의 영역까지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의 시민교육은 좁은 의미의 '구성원의 사회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수동적이고 체제에 순응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만 중요하게 다루어졌다고 설명하기도 한다(심정보, 2011, p. 186; 이가영, 2016). 셋째, 국가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입시교육에 밀려 이론적이고 형식적으로만 다루었고, 교과서 내용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생활에 적용하거나 불편한 점을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입시준비를 위한 관련 지식을 암기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였다(심정보, 2014).

지금까지의 민주시민교육은 공민교육이나 구성원의 사회화에 집중하였고 외부적으로는 입시교육에 밀려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점차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퇴보하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시민이 주체적이어야 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며 민주적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민주시민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고 실천하는 훈련을 통해 길러진다는 것을 깨닫고 민주시민교육은 주체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일이다. 이는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은 기존 사회정치적 질서를 배우고 습득하는 사회화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주체가 되어 기존 질서를 넘어서려는 주체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심성보(2016)의 주장과도 결을 같이 하고 있다.

4. 민주시민교육의 원칙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토론하고 합의를 해야 할 부분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원칙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합의된 원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몇 가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원칙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원칙 수립에 관한 논의에 일조하고자 한다.

장은주 외(2014)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으로 논쟁성의 원칙과 실천성의 원칙을 내세웠다. 첫 번째, 논쟁성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투쟁과 논쟁이 구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상대를 없애져야 할 적으로 간주하여 대립하면서 부정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투쟁’과 사회에 유익한 발전을 이끌어내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이고 평화적인 갈등인 ‘논쟁’은 구별되어야 하고, 투쟁은 억제되어야 할 대상이고 논쟁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은 민주적인 질서를 세워 나가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이며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공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형식과 내용을 모든 정파에게 중립적인 공정한 논쟁의 모델로 조직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논쟁적인 대립을 보이는 의견들이 있을 때 교육 현장에서도 그 다양성과 대립을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좋은 예로 독일 ‘정치 교육’의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협약’ 세 가지 중 두 번째인 ‘논쟁성에 대한 요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실천성의 원칙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학생이 스스로 민주적인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으로 실천을 통해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고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습득해 간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실천성의 원칙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현재 민주주의가 어떤 상태이며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다른 시민들은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민주주의 관련 정책과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고선규(2015)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4가지를 들었다. 첫째, 민주 시민교육은 비정파적·초당적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는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과 둘째, 모든 과정은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어떠한 사상도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민주성의 원칙과 셋째,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한 것에 대해 비판능력을 키워 실천한다는 참여성의 원칙과 넷째, 상위단위의 권한은 하위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을 때에만 적용되며, 그런 경우 재정지원이란 보충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한국민주시민교육원³⁾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강좌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실행과정에서 지켜야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여 각자의 의견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화 금지 원칙과 둘째, 학문이나 정치에서의 다양한 시각과 견해들을 인위적으로 제외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교육 중에도 그대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다양성 보호 원칙과 셋째, 참가자들이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 상황과 이해관계까지도 함께 분석하고, 아울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정치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정치적 영향력 함양 원칙을 내세웠다.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칠 때 지켜야 될 원칙으로 논쟁성의 원칙과 실천성의 원칙을 들었으며 절차상의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 민주성, 참여성, 보충성의 원칙 등 4가지를 들었고 실행과정에서의 원칙으로 교화 금지, 의견다양성 보호, 정치적 영향력 함양 등 3가지를 들었다.

3) 한국민주시민교육원: http://www.kdec.re.kr/column/column_pbs.php

5.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어떤 주제가 적합한가에 대해 장은주 외(2014)는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로 민주주의, 인권, 평화, 미디어, 노동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민주주의는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며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권으로 공교육의 모든 과정이 인권적 가치에 바탕을 두어야 함은 물론 정확한 인권의 개념과 범위, 이론적·규범적 토대, 일상적 삶 속에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 내용은 평화로 규정하였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평화가 절대적인 국가의 생존 조건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일상적인 삶이나 학교생활, 사회적 관계에서도 평화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전제이다.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다른 의견이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기르고 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네 번째는 미디어 교육을 들었다. 적절하고 비판적인 ‘미디어 문해력’이 없는 시민은 민주적 주체성을 발휘하기 힘들다. 미디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고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미디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노동이라고 보았다. 미래의 노동자로서 학생들이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당당하고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가영(2016)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은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지식과 시민적 능력, 그리고 시민적 가치를 길러주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먼저 시민적 지식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자유, 평등, 정의, 인권, 시민으로서의 권리, 평화, 다양한 세계관에 대한 이해와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인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 등이 포함되고 정부, 법, 역사와 제도, 민주적 원리와 과정 등이 포함된다. 둘째, 시민적 능력에는 시민적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공적 분쟁이 되는 문제에 대해 공동선을 기준으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며, 셋째, 시민적

가치는 판단능력과 다른 사람과의 협업능력 등 시민적 태도를 통해 길러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적 능력과 태도를 통해 시민생활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 관용의 정신,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신념 등 시민교육을 통해 갖게 되는 시민적 용기와 자질을 의미하였다.

요한(Johann, 1988)은 시민교육의 내용이 각 삶의 과정에서 좀 더 지성적이고(intelligent), 책임 있는(responsible)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개인의 권리 존중, 시민으로서의 권리 의무 인식, 사회 변화와 개량에 대한 관심과 참여,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의식 함양 등 다섯 가지 내용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였다(Engle & Ochoa, 1988에서 재인용).

천희완(2005)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첫째, 인권 존중, 시민적 권리, 자발적 참여, 책임, 민주적 절차 등 시민이 가져야 할 덕목이나 시민의 자질 육성을 들었고 둘째,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 교육과 문제해결력, 탐구력, 비판적 사고력 등의 고차원적 사고력 교육을 담고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민주적인 기본질서 영역과 민주사회에서의 절차 영역, 논쟁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참여 습득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표 5 참조>.

〈표 5〉 민주시민교육 내용

저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장은주 외(2014)	민주주의, 인권, 평화, 미디어, 노동
이가영(2016)	1. 시민적 지식과 이해 2. 시민적 능력 3. 시민적 가치
요한(1988)	1.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2. 개인의 권리 존중 3. 시민으로서의 권리 의무의 인식 4. 사회 변화와 개량에 대해 관심과 참여 5.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의식의 함양

천희완 2005	1. 시민이 가져야할 덕목이나 자질 육성 2. 개념 교육과 고차원적 사고력 교육 3. 질서와 절차, 의사결정, 참여 습득
----------	---

위에서 열거한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정리해보면 민주 시민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으로 첫째, 민주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둘째, 공공의 덕목에 대한 가치와 태도, 셋째,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평가를 통한 의사소통과 사회 참여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김희은 외, p. 44, 2010).

6. 민주시민교육 현황

민주시민의 육성에 대한 내용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즉,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 민주시민 교육은 주로 국가 주도의 공민교육이 주를 이루었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역량, 태도 등은 공유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의 민주시민교육 현황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성수 외(2015)는 현재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불일치, 도구화, 무관심, 제도적 미비, 인식의 결여 측면에서 학교, 교사, 학생, 기관 등과 같은 대상별로 제시하였다. 첫째, 불일치(Inconsistency)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도 비민주적이고 수직적인 학교문화와 대화와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내용의 불일치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관련 교육내용과 강의식 수업 방식의 불일치, 이론과 실천 불일치 등이 존재한다. 둘째, 도구화(Instrumentalization) 측면에서 학교의 다원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교사 및 학생의 자율성과 주체성의 부족, 그리고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셋째, 무관심(Indifference) 측면에서 학교에서는 학생 자치활동이 점점 더 추진 동력을 잃고 있고, 교사들은 업무부담 과중으로

인해 자발적 연구회를 조직하거나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이 역시 대학입시를 위해 서로 경쟁해야하는 환경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제도적 미비(Institutional deficit) 측면에서 학교 내 교직원 회의 시 민주적 협의문화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학생 자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들의 학교 운영에의 참여 기회 역시 부족한 문제가 존재한다. 다섯째, 인식의 결여(Incognizance) 측면에서 학교에서는 압축된 지식 전달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염경미(2017)는 민주시민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교육과정 요인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 학교교육이 공민교육 위주로 이루어져 체제 유지와 사회 안정 위주로 사용되어 민주적인 사회 문화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 학교교육이 대학입시를 위한 선발적 기능으로 작동하여 출세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학교문화가 지식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치와 태도, 참여와 실천의 부족, 교사들의 주체적 역량 부족 등을 들었다. 교육과정 요인으로는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과정상 체계적이지 못한 것과 초·중·등 교육과정은 물론 고등교육기관의 교양과목에도 설치되어있지 않은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지적하였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현황을 정리해보면 학생, 교사, 학교문화, 조직, 제도, 교육 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에는 부족하고 아직까지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환경과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교사의 민주성 발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모든 구성원들의 공감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민주시민교육과 교사

1.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인식과 실천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III. 민주시민교육과 교사

1.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인식과 실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력이 중요하다.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김성수 외(2015)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고 특히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였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핵심가치에 대해서는 교사들 간에 서로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국 초등 교사와 일본 초등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인식을 살펴본 유은영(2010)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들은 일본 교사들에 비해 준법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약자에 대한 보호 의식이나 탈 권위 의식 등은 부족하다고 분석하였다.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인식에 관한 위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으나 민주시민교육의 핵심가치와 목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의 준법의식이나 공동체 의식 수준은 높으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아직도 권위적인 문화가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이미 많은 교사들이 학생 참여적인 수업 방법을 잘 활용하고 있었다.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교사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안전, 그리고 그들의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도덕적·미적·사회적 성장에 책임이 있다. 시험 성적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그들의 책임성을 전적으로 나타낼 수 없다(넬 나딩스, 2016, p. 49).”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려면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 교사가 먼저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강영혜 외(20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소통능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먼저 교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학생의 가정환경, 성격, 지적 수준 등이 모두 다른 학생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져야만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갖추는 것이며, 둘째, 다양한 교수 방법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소질을 찾아주고 인정해주고 심화시켜줄 수 있는 이해와 수용, 관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넷째, 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및 학부모들과 연계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성수 외(2015)는 교사에게 필요한 민주시민교육 전문성으로 첫째, 수업과 관련된 것으로 민주적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교실 분위기, 가치 지향적 수업방식, 학생들의 경험 및 체험 등을 활용한 교수법을 언급하였다. 둘째, 수업 외의 전문성으로 학생자치활동 보장,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생들의 학교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 독려 등을 주장하였다.

심성보(2014)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언급하였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질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마음의 진정성, 함께 하면서 타인을 도와주는 배려 정신, 친밀한

관계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인 공동체성,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관심을 갖는 인간성, 자기 성찰과 탐구 그리고 자아 각성에 관심을 갖는 내면세계,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환경을 대하는 생태적 감각, 세계의 변화와 자기 개발에 대한 변화에 민감, 스스로 책임지고 자부심을 갖는 자기신뢰 등을 제시하였다(p. 23). 교사의 민주적인 역량으로 의사소통하며 대화하는 기술, 사회적 환경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능력, 공공 토론에 참여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p. 22)을 꼽았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 자료를 종합해보면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첫째, ‘소통 능력’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둘째,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인권 존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동료,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관계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현황 및 제고방안

1.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현황 및 문제점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제고방안

IV.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현황 및 제고방안

학교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교사가 먼저 준비되고 주체적으로 학교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민주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초·중등 교사 18명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 면담(FGI)을 실시하였다. 집단면담에 참여한 교사는 초등학교 두 그룹과 중등학교 두 그룹, 총 네 그룹으로 나누어 4차례에 걸쳐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집단면담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이후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교사 개인 차원, 동료교사와의 관계, 학교 문화와 환경적인 측면 등 대상과 관계성을 기준으로 영역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1.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현황 및 문제점

가. 민주시민교육: 변하고 싶지 않은 교사

먼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관련 교사 개인적 차원에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수업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수업을 다른 동료교사와 나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자치를 권장하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방해자가 되기도 하고, 학생을 교육의 대상보다는 규칙에 따라야 하는 통제의 대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세밀함이 부족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교사 자신이 민주성과 주체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많지 않아 학생들과 함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어렵고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 밖에 학급 자치에 대한 실패의 경험만을 가지고 있고 성공의 경험이나 교육을 받은 경우가 흔하지 않았다.

1) 익숙지 않음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익숙한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토론이나 모둠 수업 방식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동료 교사와 함께 나눈다는 것에 대한 낯설고 어색함으로 인한 두려움, 수업 내용을 일상생활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다.

가) 수업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한 낯설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업이 강의식 위주로 이루어져 왔었으나 이러한 일방적인 수업방식에서는 학생이 주체가 될 수 없기에 모둠별 토론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학교 현장에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아직까지 교실에서 보편화되지 않고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학습할 내용이 너무 많아 일정 부분은 강의식 수업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교사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이 강의식 수업인지라 모둠 활동을 통한 토론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과 같은 낯설고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요새는 수업 방식 또한 많이 바뀌려고 그러잖아요. 수업방식도 교사가 이야기하는 것(강의식 수업)보다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실천)해보기도 하는데 (결국은) 항상 수업에서 학생이 주인이 아니었죠. 칠판에 적어진 거 받아 적고(B초, J교사)

수업 방식이 변하고 있는 것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결국은 아이들과 같이 말해보고 그런 것들이 숙련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하다가 갑자기 변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저도 수업을 아이들을 배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려고해도 배려는 잠깐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전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더라고요(B초, J교사)

교사들이 느끼는 이러한 거부감은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인 강의식 수업에서 안정감을 가지지만 토론수업이나 모둠 수업 등의 학생 참여적이고 학생 주도적인 수업으로의 변화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 저항한다는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Fullan, 2001; Greenberg & Baron, 2000).

나) 수업을 공개하고 함께 나눔에 대한 낯설

수업을 할 때 학생을 주체로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수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데 아직까지는 자신의 수업을 동료교사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수업을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여 수업을 공개하고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아직까지 교사들에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은 내 옆 반 선생님이면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실제로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 등 짬나는 시간에나 협의를 할 때 볼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고, 그 다음엔 수업 공개를 통해서 보는 거 말고는 실제로 (다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B초, J교사).

이제까지 경험한 학교를 봤을 때 동료가 학급(운영)을 정말 잘 하는 데 들여다보면서 얘기해 본적은 없어요. (다른 교사의 학급을 들여다보는 게) 되게 조심하고 민감하기 때문에(광주D초, O교사)

2) 방해자가 된 교사

학기 초가 되면 학급회의를 통해 학생들끼리 자율적으로 학급 규칙을 정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학급 규칙 자체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타협하는 등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나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 등 민주시민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 교사가 어떤 내용의 규칙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서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급 규칙을 정하곤 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자율성을 신장시켜주기 위한 촉진자의 역할이 아니라 방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수업문화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수업에서 모르는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시민성을 배울 수 있으나 아이들은 이미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알고 있고, 교사 자신도 지금까지 정답을 말해줘야 하는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촉진자의 역할보다는 방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 동안 정해진 답을 잘 맞춰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학급규칙 정하라고 하면 ‘선생님 말 잘 듣기’. (말)잘 안들어서. 애들이 거기(교사가 원하는 것)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것(학급규칙 정하는 것)을 왜 하는지 얘기를 충분히 하고 잘 안되면 규정 고치는 걸 조금 늦추고 해야 하는 데 아이들은 선생님이 원하는 적당한 답들을 온 몸으로 인식하고 가져다 주는 거예요(C초, J교사).

아이들이 그 수업을 능동적으로 들을 때 (대화나 토론 등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데서 민주시민성이 발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배우면 좋겠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알잖아요. 교과서나 선생님의 말은 뭔가 정답을 찾아가야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A초, Y교사).

교실 내에서 누가 무언가 활동을 많이 하고 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교사가 학교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애들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그대로 보고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장애물은 저는 교사라고 봐요. 고민하지 않는 교사가 있기 때문에 성장 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광주D초, O교사).

3) 통제의 대상인 학생

아직까지도 많은 교사들이 학생을 대할 때 정해진 규칙과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규칙을 세우고 통제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학생의 배움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데 교과 내용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명의 학생을 한꺼번에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해 상벌 제나 스티커를 사용하기도 하고 줄 세우기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의 대상이 된 학생들은 자발성보다는 의존성을 키우게 되고 상이나 벌이 없어진 후에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상벌은 교사가 학생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각이나 행동을 강요하기에 주체성과 자발성을 키워주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관리된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자치 활동 자체가 교육에서 무의미해지고(F중, L교사)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을 자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대한민국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A고, L교사))

학교가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직원회의에서 여전히 비민주적이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어떻게 교실에 가서 민주적이겠어요? 교실은 여전히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C초, J교사)

교사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직도 제가 봤을 때 폭력적인 방식들이 많이 존재해요. 특히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그 교실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독재자, 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B초, J교사)

작년에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우리학교를 놀러 왔어요. 그 애한테 중학교 생활 어때? 하고 물었더니 중학교가 좋대요. 왜 좋은지 물어봤는데 줄을 안서도 된 대요. 너무 쾡 맞았어요. (C초, J교사)

학교에서 위계문화가 존재하고 이러한 것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아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니까 줄을 세우고 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이들은 뛰는 게 본성이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놀이공간을 만들 것인가를 협의해야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사마다 관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A초, Y교사)

4) 학생들과의 관계성 부족

교사가 학생을 수직적 관계인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주시민 관련 교육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려고 학생들과 관계 맺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어려움을 겪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토론수업이나 참여활동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는 진학과 관계가 없다며 방해를 할 때 당황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나 조동섭(2005)에 의하면 지식기반 전문성, 신념기반 전문성, 능력기반 전문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식기반 전문성만 강조하다보니 능력기반 전문성에 포함되는 학급경영이나 학생들과의 관계 맺는 능력 등에 관한 전문성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3년차 되는 교사의 체크 경향(학생들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과 5년이 넘어가서 나오는 경향(수업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함)이 구조적으로 바뀌지는 거죠. 교사만 되면 자동으로 애들과의 관계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처럼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너무 쉽게 포기하고 현실에 적응하죠(F중, L교사).

제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는 건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할 때 대단히 버겁고 힘들거든요. 최선을 다 했는데도 애들이 공부 중심으로 가거나 아니면 뭔가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걸 대단히 불편해하는 그럴 때 허탈감이 오기도 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그런 마음도 들지만 (마음속에) 또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죠. 나는 여기 까지다. (소명의식이 아닌) 직업의식도 들어오면서(A고, L교사).

5) 민주적이지 않은 교사

민주시민교육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요소는 지식, 가치, 태도, 실천(홍윤기 외, 2009)이다. 교사가 이를 학생에게 가르쳐주어야 하는 데 교사 자신이 민주성과 주체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거나 민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학생들과 함께 삶속에서 실천해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을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이 교과교육에만 치중되어 있어 시민교육 과정도 지식 위주의 교육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 실천 영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도 교사의 소극적인 태도 혹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어떻게 도와주어야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문제를 제기한 학생을 못마땅하게 여겨 제지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수업을 하라면 하고 또 어떤 업무 내려오면 그 업무 처리하기에 급급하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사는데 내가 주체가 돼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라고 물어보면 나부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이 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광주D초, 교사O).

제가 민주시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민주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걸 학교에서 아이들과 뭔가를 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C초, J교사)

교사부터서도 민주시민 교육을 못 받았고 교무실에서 자기 발언 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학급 내에서 아이들에게 발언권을 보장해 줄 리는 없을 거고 여전히 수업 안에서는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이유는 교사가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안(교실 안)에서 자기의 권한 속에 있는 것은 교권이라는 이름하에 봉쇄하고 있고.(B중, K교사).

문제해결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했을 때 전혀 자기(교사)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D초, O교사)

6) 학급 자치 경험이 없거나 실패의 경험만 있는 교사

학급자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학급자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해하고 학급에서 자치활동의 역할에 관한 훈련이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사는 학급 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급을 자치적으로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학급회의의 부서체계에 대한 이해 조차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학급자치에 대한 경험이 있더라도 성공의 경험은 없고 실패의 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시 실천하려는 데에 두려움이 앞서게 된다.

H교사 : 교사들이 (학급자치를) 할 줄 모른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K교사 :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교사들이 학급자치) 경험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걸(학급자치를 해본) 경험도 없고 (학급자치 관련) 교육받아본 경험도 없어요.
 J교사 : 어떻게 자치적으로 (학급을) 운영할지도 몰라요.
 K교사 : (학급자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H교사 : (학급자치를 하라고)주면 맨붕(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죠).

학급자치활동 문화가 교사들에게 개념으로 전수되지 못하고 (교사 학창시절의) 경험만 있어요. (그) 경험만 가지고 교사가 돼서 자기(의) (오래되고 제한된 학창시절) 경험을 내세워 ‘(아이들끼리 무슨) 회의가 되겠어? (수업 시간에) 말도 못하는데 뭐 하러 회의 시간을 (마련해주나?)’라고 생각한다(F중, L교사).

교사들도 학급 회의의 부서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학습부라거나 뭐 문화부가 뭘 할 수 있는 것인지 학급 안에서의 학생들이 서로 학급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학급 행사들의 판을 짜고 이런 것 속에서 역할을 나누어지는 것이 학급에서부터 훈련되는데(F중, L교사).

제일 중요한 건 (교사가 학급자치에 대한) 성공의 경험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규 때 ‘빛깔 있는 학급 운영’을 실천해봤는 데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거 같아요. 그런 실패 경험들. 열정을 많이 투여했는데 별로 성공스럽지 못했다는 경험들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었고요(A중, K교사).

나.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동료교사

1) 닫힌 교실(교사 간 소통 부족)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위는 학급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자신의 학급을 개방하여 동료 교사들과 함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자신의 어려움과 갈등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다(Fullan, 1995). 교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실 문을 열고 교사간에도 관계를 맺고 지식을 나누어야 한다(주삼환, 1998)고 하였으나, 현실은 달라 소수의 학급만이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급은 아직도 한 교사의 고유한 영역으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비민주적인 학급 운영을 하더라도 관여할 수 없는 분위기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학급 간 소통과 협력의 문화는 아직도 낯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교사들 간의 공감이나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면담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학급은 아직도 담임의 영역으로 되어있고 부장들이 담임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본다고 하지만 관계성이 좋은 환경인 경우에는 그래도 (담임 선생님과 학급 운영에 대한 협의가) 조금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버겁고 안 되더라고요(C중, J교사).

(학급이)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공공적인 어떤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학교(와 학급)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곳(학급)에서 성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F중, L교사).

학급 운영 연수를 해보면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학급은 내 것이고 자기 학급 안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욕심을 부리고 어떤 교사들은 무관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자기가 책임지고 남이 간섭해서는 안 되는 관리단위로써 학급을 바라보고 어떤 협력적인 발상 자체가 봉쇄(되고) 고갈되어 있는 거죠(F중, L교사).

학급회의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급 활동시간이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시각도 이제 학급은 담임의 권한이지. (다른 교사의 학급에 관해서는) 노터치로 다시 흐름이 전환되기 시작하고(C중, J교사).

2) 외롭게 실천하고 있는 교사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적 가치에 대한 동의가 없는 환경에서 학교나 동료의 도움 없이 일부 개별 교사가 일부 교과목에서 또는 일부 학교 행사를 중심으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체계적인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다보니 개인 교사의 너무도 많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며 과도한 업무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학교차원에서 동료들과 함께 비전을 세워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수없이 많은 자료나 그런 것들이 내려오지만 몇몇 관심 있는 사람(이나), 부서, 교과에 그쳐버린 것 같다. (민주시민교육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일부가 조금 할 뿐이어서 우리만의 생각 있는 선생님들만의 교육으로 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C중, J교사).

나름대로 그래도 학교에서 민주적이든 참여든 노력을 해왔고 꽤 많은 일들을 그동안 했었는데 완전히 끊겨 버린 거예요. 다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 역할을 하시고, 다시 이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어요(C중, J교사).

저는 사회과 속에는 민주시민교육(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회교과를 하니까 민주시민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플러스알파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과중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과 일과 자체가 공감은 하지만 실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죠(E중, K교사).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사 개인이 갖고 있는 소신일 뿐이지 지역사회와 마을, 학교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 속에서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이) 사회의 대의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F중, B교사).

3)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의 시각 차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당황해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교사들 사이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원칙이나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교사마다 목표와 핵심가치에 대한 생각과 실천 방식이 달라서 이를 경험하는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해한다. 둘째, 교사마다 민주시민교육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 접근하는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이를 대하는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한다.

학급 운영이나 학급 자치활동, 학생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민 교육이라는 개념보다는 교사 개인의 애정, 아이들과의 친근한 관계 설정, 교육적 맥락에서 자기 취향 등으로 다가가는 경향이 있지요. 교육적인 의의가 잘 설명되지 않고(F중, L교사).

아이들은 혼란스러워 해요. 일단 새로운 것(비폭력 대화)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른 선생님들에게 똑같이 표현하려고 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이 때) 아이들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너무 상처 받아요. 많은 아이들이 제게 하소연하기 시작해요. 이런저런 불편함에 대해서. 저는 공감해주는걸 선택하죠. 하지만 제가 (아이들의 불평과 하소연에) 맞장구치거나 편들어줄 수 없어요(B중, K교사).

4) 변화에 반대하는 동료 교사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배우고 실천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참아주고 기다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료 교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동료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며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어 주도적인 교사와 갈등을 빚게 된다. 동료 교사

들도 학생의 자율성 신장이나 시민성 실천 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불편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해하기도 한다.

또한 교사가 나서서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환경을 조성해주지 못하는 것은 교사 자신들도 민주시민의 권리를 인정받고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에서 개인의 의견이 무시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그런 선택권을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제가 학급에서는 (민주시민성) 실현을 해봐요.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 되는걸 경험을 했어요. 올 해 다른 선생님이 와서 부장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은 안 되는걸 되게 해보려고 애 썼잖아요’라고 (B중, K교사).

제가 학생 부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어디까지 자율권을 주고 맡길 수 있겠는가(를 논의하는데) 걸리는 게 (동료)교사예요. 왜 자기들(교사들)이 결정한 내용을 허락도 없이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느냐? 그리고 왜 (학생들이) 마음껏 발언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의 질서를 깨뜨리느냐 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어요(C중, J교사).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실천 영역이거든요. 그걸 저는 사회참여활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천했고요. 2002년부터 쌓여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물론 성과도 있었고요. 이 과정 속에서 방해물이라고 한다면 (동료) 교사들도 저걸 뭐 하러 하지? 이런 불편한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A고, L교사).

공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관 현관 앞에다 공 바구니를 놔뒀어요. 끝나고 나면 제자리 갖다 놓는 걸 전제로 한 거죠. 근데 끝나고

나도 공은 운동장에 그대로 있는 거죠. 공을 내가 항상 주워 다니고 선생님들이 주워 다니고. 이런 것들이 두 달 가까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꼭 해야 되냐. 아이들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은 건데(B초, J교사).

교직원회의에서 앞서 결정했는데 교장이 싫어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직원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존중되는 문화가 오면 당연히 아이들이 결정한 것도 존중해 줘야겠다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무시되고 교직원회의가 무시되고 형식화되고 교장 선생님이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에 익숙해진 (교사로서는) 아이들한테 내가 결정한 것은 내가(선생님이) 보장해줄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B초, J교사).

다. 약화된 학생자치

1) 약화된 학급 자치

학급회의 시간이 확보되었던 시기에는 형식적으로라도 일주일에 1시간 씩이나마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교육과정이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바뀌었으나, 너무나 많은 의무교육 내용이 들어가면서 학생자치활동은 여러 가지 활동 중 하나로 전락하여 배당 시간도 줄어들고 중요도도 낮아지게 되었다. 학급회의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 민주주의 경험이라는 아주 작은 기회조차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비중이 달라지잖아요. 현재 학교 내에서 정말 요상한 교육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몇 시간 했는지 보고까지 (해야 하고) 시민교육이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시간 확보.

그거를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마련해주고(나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라고 해야지(G초, B교사).

예전에는 (학급회의 시간을) 주 1시간씩 확보가 됐었죠. (이제는) 학교에서 51시간을 자율 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나눠서 쓰다보니까 (학급 회의가) 매주 되지가 않아요. 그 전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들이 주제를 찾기도 했었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경험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학급회의가) 굉장히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E중, K교사).

2)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학생회

학생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회가 유명무실해지거나 대학입시 준비에 필요한 스펙 쌓기 도구가 되어 진정한 학생 자치회의 기능이 약해졌다. 학생회 간부 수련회도 주체성과 자율성, 책임성 등을 키우기 위한 내용들로 채워지기 보다는 격려 차원으로 행해져 내용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생부 또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도와주는 공식적인 부서임에도 현재에는 충분한 인력이 배정되지 않아 학교폭력 관련 업무나 행정적인 업무 처리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치 영역에서나 학생들이 갖는 역할 측면에서 보면, 학생 자치회가 너무 많이 약해져버렸다는 것. 예전보다 학생 자치회의 역량이 너무 약해져버렸고 그냥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학생회장, 부회장의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가산점 때문에. 선거만 당선이 되어 버리면 전혀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E중, K교사)

최근에 오면 올수록 학생부장이 어떤 학교폭력 사안에서 역할이 엄청나게 (많고). 학생부에 교사가 많지 않으니까 한 명이 다 하다보니까 결국은 (학생회) 애들한테 요청해서 (학생회) 회의

자료를 만들뿐이지. 세밀하게 애들한테 그런 과정들(회의나 토론 방법)을 잡아주고 그러지를 못하는 게 안타까움이 있죠(F중, L교사).

라. 아직 변하지 않은 학교 문화

1) 수직적이고 경직된 학교 문화

우리나라 교직사회는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하고 상하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협의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형식적으로는 교사 간 협력과 교직원 회의 문화 개선 등 학교 안에서 민주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학교 현장의 수직적인 구조는 아직까지 바뀌지 못한 경우가 많다. 수직적인 관계로 경직되어있는 위계질서로 인해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위축되어있는 이러한 학교 문화는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에 가장 큰 방해물은 학교의 관료제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학교든 교육청이든 어디에나 있는 이 관료제 문화가 굉장히 많은 것을 옥죄다고 생각해요. 교장/교감 선생님이 교사를 관리하는 것, 부장 선생님들이 교사를 관리하려고 하는 게 회의를 할 때도 내 한마디와 부장의 한마디 힘은 다른 거죠(A초, Y교사).

선생님들은 그다지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업을 하라면 하고 업무 내려오면 그 업무 처리하기에 급급해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사는데 (교사로서)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나라고 생각하면 나부터도 안 되는데 애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광주D초, O교사).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배운 과정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안에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민주적인 마인드가 아직 안되어 있어요(A중, S교사).

우리 교사들이 교장, 교감의 권위에 (조금씩) 눌려지듯이 아이들도 또한 그 조직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면서 (교사의 권위에) 눌려져있지 않나(OO팀, H교사).

2) 학생이 중심이 아닌 학교

학교가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도 학생을 학교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통제와 관리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시각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수업 시간에도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한 시간 한 시간 공부하는 일상적인 배움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일상의 이런 배움보다 임상수업 한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수업에 잠깐 보러 오는 이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 (수업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와 수업계획안)을 쓰라는 거예요. 나는 공평하게 모든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게 다 교사 중심적인 거죠. 아이들 중심적인 게 아니라(A초, Y교사).

학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학급회의 하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뭔가를 선생님한테 주거나 학교에 가면 다 무시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봐야 뭐해요. 선생님 하기 싫어요(B초, J교사).

3)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교사

학생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수업 시간(수업 내용과 수업 방법 포함)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생활 속에서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교사가 학습 내용의 과다로 인해 그리고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너무 바빠서 마음의 여유도 없고,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해서 시민 교육을 실천할 시간이나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애들이 수업을 통해서 민주시민을 느껴야 하는 데 (학교)행사들 다 감당하고 교과 진도를 같이 가다보면 (바빠서 민주시민교육을) 잠깐 언급을 하지만 이걸 목적으로 한 시간 정도 내가 의미부여를 해서 (수업을) 하기에는 마음의 여유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E초, B교사).

수업 시간에 아무리 핵심성취 기준으로 줄였다 하더라도 기본 지식을 어느 정도 전달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 중에는 아이들이 한자어에 약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비례 대표제에 대해 애들이 개념을 못 잡아가지고 그걸 설명하는데 30분이 가더라고요(D중, L교사).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데 있어) 제일 큰 걸림돌이 제 의지예요.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데 하려고 하면 일이 너무 많아져요. 나는 사회 교과를 하니까 민주시민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플러스알파의 활동을 위해서는 제 시간과 제 노력을 투자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과중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과 일과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뻑뻑한데) 선생님들도 솔직히 (민주시민교육을) 해야지 공감은 하지만 실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죠(E중, K교사).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좀 확보해주면 다양한 범 교과 학습이라고 20 가지가 넘는 걸 교육과정에 반영하라고 와요. 시수도 어마어마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

(민주시민교육)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하라고 하면 이것은 용광로에 녹듯이 사르르 녹거든요. 이것(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공허한 얘기지만 필요한 얘기죠(광주D초, O교사).

이와 같은 내용은 Ely(1990)의 주장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Ely(1990)는 ‘변화를 위한 환경적 조건’에서 8가지를 제시하였고 그중 하나로 실행자(교사)에게 학습하고, 통합하여 반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변화의 실행자로서 교사에게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부족: 배움과 삶이 따로

민주시민교육의 학습과 실천을 위해서 학교안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학습과 실천은 실생활과 직접 연계 되어 학생들에게 좀 더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좋은 학습과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여러 시민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교실로 가져오려고 할 때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할 때 프로그램 종류나 내용, 주체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개인적 인맥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가 해 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했거든요. 인맥이 있어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필요했기 때문에 지역 사회 기관들 방문했고 내 필요성 이야기 하고 서로 머리 맞대고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요즘에는 지역사회 시민단체도 교육프로그램을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학교에 잘 맞지 않은 프로그램도 많아 우리(학교)도 밖(지역사회)을 잘 모르지만 밖도 우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A고, L교사).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 연계가 꼭 항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역사회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느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개척해라. 뚫어라. 그런데 광주라는 지역 단위가 이런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센터라든지 재단들을 확립해 애들이 자유롭게 경험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E중, K교사).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제고방안

앞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대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집단 면담내용을 토대로 학생, 교사, 제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 학생과의 관계 전문성

1) 기초체력 키우기: 자아 존중감과 학생에 대한 이해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의 생각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존감과 자율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가 면담에 의하면 요즘의 학생들은 수동적이며 피동적인 경향이 높으며 의지력이 부족하여 주체로 세워주기 쉽지 않다. 민주시민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학생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표현 할 수 있도록 ‘자존감’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실제로 교사가 개별적으로 자존감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학생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교사가 가져야 할 전문성 중의 하나로 꼽았다. 학생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존중받아야 될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아이의 성장과 발달 정도, 처한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아이들을 운영의 주체로서 (세워주려고) 했더니 애들이 자율성이 너무 낮아요. 판단력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같이 활동을 하더라도 애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단계지만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아 존중감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E중, K교사).

민주시민교육의 교사의 전문성은 인간의 이해 같아요. 아이는 인간이에요. 아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교사에게는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C초, J교사).

2) 공감과 배려 / 참여와 권리 보장

면담에 참여한 현직 교사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성을 키워주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으로 공감과 배려를 언급하였다. 학교의 행사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배우고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 학생들과의 만남 안에서 학생들의 말에 공감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교육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권리를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성숙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어떤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민주시민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일상적인) 만남 안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최대한 공감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걸 경험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요(B중, K교사).

민주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이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일반.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세울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내가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한다)(C중, J교사).

공감, 배려, 의사소통 등의 용어가 잘 정돈되어 행동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 이라고 하면 교사들이 그런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었는지로 이어져 야지 진짜 민주시민교육의 성숙된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C초, K교사).

저희학교 같은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주인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업으로 끝 게 아니죠. 학교 시스템과 학교 문화로 풀겠다는 거죠. 학생들에게 본인이 옳다고 생각 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 그럴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제공하고 이것을 저희(교사들)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광주D초, B교사).

애들한테 무엇인가를 할 때도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저는 항상 마당만 마련해 주고 나머지 푸는 것은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는 거니까 풀어놓는 편이거든요.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에서 할 때 따로 용어를 가르쳐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이 라고 해놓고 수업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광주D초, O교사).

3) 갈등과 실패의 경험과 작은 성공의 경험

또한 면담을 통해 가르치는 교사가 민주주의에 대한 실제 경험이 부족 하더라도 학생들이 생활에서 스스로 불편한 점을 찾아 개선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캠페인이나 민원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데는 서로 부딪히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실패의 경험 또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임을 언급하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거나, 학급회의 등을 통해 찾아낸 생활 속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또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서로 다르지만)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과정들 자체도 별로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딪히고 갈등하는) 과정들 속에서 서로 조금씩 익혀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도 조금씩 민주화 되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교사들도 익혀가고 있고(B초, J교사).

아이들의 배움이나 교육활동이 아이들의 실제 삶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서 (불편함을 주는) 문제점이 있어요. 불평만 하면 변화가 없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은 뭔데? 아이들 삶 속에서 불편한 점을 아이 스스로 개선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C초, K교사).

어렸을 때 경험이 중요하다고 봐요. 어렸을 때의 자치 경험. 아주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바꿔봤던 경험. 협상을 해 나가면서 애들이 어쨌든 자기가 원했던 것의 일부라도 성공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핵심적인 것은 무력감에 빠지게 할 거냐 아주 적은 것이라고 성공 경험을 해주게 할 거냐의 문제라고 보고 그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할 수도 있고 완전히 수그리게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A중, K교사).

4) 학생 수준에 맞는 선택권 부여

전문가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선택권의 폭을 조절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의사소통을 배우는 단계로 특히 교사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에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로 실제로 학생들이 직접 실천해 보게 하여 점차적으로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아이들끼리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 지로 보는 건 상당히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 단계예요. 예산을 아이들한테 준다든지 어떤 것을 너희가 계획 짜봐라 이런 것을 초등에서 실현하려고 할 때 (초등학교 저 학년 때는) 아주 쉬운 일부터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사소통(C초, K교사).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롤모델 역할 이런 부분에 민주시민교육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중학년이나 고학년은 실제 실행 해보고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E초, B교사).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초등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경험을 충분히 갖게 한 다음에 한 번 해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자율적인 게 나오는 거지. (아무런 경험도 없는 학생들에게) 자율권 줄 테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뭐해라 선택해봐라 이거는요 저는 방임이라고 생각해요(G초, B교사).

아이들의 교육활동이 실제 삶과 연결되어있고 우리 주변에 문제점이 있어요.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말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변하는

경험을 했을 때 아이들은 참여하게 되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민주시민교육을 따로 둘 게 아니라 아이들 삶속에서 불편한 점을 아이들 스스로 개선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C초, K교사).

나. 수업/학급/학교 운영의 전문성

1) 학생의 수업 직접 참여와 학생 의견 존중

모든 교과에서 민주시민을 주제로 가르칠 필요는 없으나 수업 방식은 학생들의 인격과 학습권을 최대한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학급운영의 원리 중에서 민주성의 원리(박병량, 1993)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사가 아이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들어주고 아이들 각자가 학급에서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토론과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하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주기 등, 학생의 주체성을 키워줄 수 있는 민주적인 수업 방식을 모든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모든 교과가 다 민주시민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꼭 가르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업 방식은 다 민주적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활화되면서 민주 교육이라는 것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수업 중에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수업인가? 아이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뭐든지 다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인가?(OO팀, H교사)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업에서 아이들이 자기 주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 내가 가장 신경 쓴 건 그게 아니었을까. 수업 내용이나 수업 방식을 통틀어서 결국 자기 삶의 주인은 나고 의사 결정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민주시민교육에서 주력을 했던 부분인데 주체성을 발휘하게 하려면 아이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하고

참여를 많이 시키고 아이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수업 방식에서 주로 작동했던 것 같고(B중, K교사).

교사가 곁에서 아이들과 하고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이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음으로는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세울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과정 속에 내가(교사가) 있으면 되고 그 방식은 다양하다(C중, J교사).

2) 동아리 활동이나 자유학기제 활용

현재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것은 진도 문제가 없는 동아리 활동이나 평가에서 자유로운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 기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 시간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제(평화, 통일, 인권 등) 수업을 학생 참여형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동아리 시간은 교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진도하고 상관없는 시간이라 학생 인권에 대한 주제로 동아리를 운영하여 활동 중심으로 또는 활동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캠페인 형태로 아이들에게 전파시키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E중, K교사).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할 때 주제선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때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짜서 2년간 운영을 해보았어요. 이 시간 같은 경우는 17시간(한 학기)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활동 중심 수업을 하다보니까 주제선택 프로그램에서 아이들과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홍보나 캠페인 활동으로 이어지게끔 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한 것 같아요(E중, K교사).

수업시간에 내용을 핵심성취 기준으로 줄였다 하더라도 기본 지식은 어느 정도 전달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한자어가

약하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 30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참 좋거든요. 원하는 주제를 통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평가가 자유롭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치교육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자유학기제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D중, L교사).

3) 학급회의 등 학급을 중심으로 한 학급 자치활동 보장

학생들의 민주시민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학생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학생 전체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높지 않다. 따라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학급 중심의 자치활동으로 이는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급이라는 자치 조직 안에서 정기적인 학급회의 시간을 마련하여 자신의 의사표현을 해보고, 급우들과 함께 토론과 협의과정에서 갈등하며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호이해, 공감, 존중과 같은 민주시민성이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가 질문을 던지거나 생겨난 갈등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이다. 교사가 학급회의에서 조그마한 실천 사례들을 만들어서 토대를 쌓고 좋은 선례를 만들어 이를 퍼트리는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확대해 가는 것이 좋은 방법임을 전문가들은 강조하였다.

제가 겪은 학교들은 학생회로 파급 효과는 없었어요. 학생회가 사업을 하고 자기들끼리 일을 해서 재들이(학생회 임원들이) 저절로 공부가 됐겠네. 이런 모습들은 많이 봤지만 학급단위 실천으로 이루어졌을 때 학교 전체로 좀 더 힘이 있더라고요. 일상적으로 주에 1회 그렇게 됐거든요(C초, K교사).

학급에 주는 시간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학급)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나가야 되고(OO팀, H교사).

꼭 해결해야 할 문제나 선택해야 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급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것들이 우리 학급 문화 안에 들어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B중, K교사).

학급회의를 할 때는 항상 서클(원)을 만들어 운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둥글게 앉아서 서로 얼굴보고 하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 때 질문을 던지는 것도 교사의 능력이에요. 그 때 나온 갈등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도 교사의 능력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자치회의를 주더라도 주제거리가 없다고 포기해 버리는 것은 그것을 운영할 기술이 없기 때문 인거죠. 분명 그 기술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A중, S교사).

교실에서 사실 (학생들끼리) 힘겨루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교육을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그러니까 갈등 해결을 중심으로 되고, 그 안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자기 할 말을 하는 그런 경험이 초등에서는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C초, K교사).

어떤 특정한 선생님이 학급에 계시다면 출발점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에서 시스템화로, 문화로. 이게 전략적인 단계로 삼고 있거든요. 누가 먼저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의 민주시민교육의 척박한 토대에서는 우리 학교는 그렇게 풀고 있죠(광주D초, B교사).

4) 학생회 운영과 학교 행사 주체로 참여 보장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생회와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학생회장 선거 또한 좋은 실천 방법이다. 학생회 고유의 공간과 예산을 주어서 학생들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여 학생회 자치

활동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학생회실이나 동아리실의 물품도 아이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실천 방법일 것이다. 또한 학생회에서 직접 시험 시기, 수련회, 수학여행 시기, 졸업식, 체육대회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하는 것도 좋은 실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학생들 스스로 자치조직 속에서 구성원이고 스스로 의견을 내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그래서 학교에다가 무언가를 반영해 가지고 학교를 바꿔보게 하는 가장 유력한 무기가 학생회잖아요. 그러면 학생회를 제대로 자치조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해요(B초, J 교사).

학생회장 선거하는 것도 많은 선생님들이 형식화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모의 선거를 하는 것과 진짜 대표를 뽑아서 학교의 운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대표를 뽑게 학교가 만들어주는 건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죠(C초, J교사).

학생회에서 논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나면 예산이 (있어야죠.) 문제는 그 예산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고, 아이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돈이 필요한데. 또 그 자체를 아이 스스로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사실은 그 돈을 주는 학교들이 많이 없는 거죠(B초, J교사).

학생들의 교육의 권한을 공간이던지 아니면 특정한 활동이던지 간에 그들에게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학생회가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학생들을 존중하는 학교라면 학생들이 하는 걸로 인정해 주는 학교라고 봐요. 학생들이 고유의 권한이 많은 학교.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광주D초, O교사).

학생회 운영을 학생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저희(교사)가 지원 하는 형태로 안내판이나 학생회실, 동아리실과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던 지 학생회 예산을 잡아 놓고 아이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게(광주D초, O교사).

시험 시기 같은 것은 아이들이 결정하게 하죠. 교사들 의견 들어서 그리고 수련회나 수학여행 시기도 학기나 기간 이 정도는 아이들에게 맡겨서 할 수 있거든요. 축제, 졸업식(은)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틀 같은 것만 주고요. 축제 위원회라는 것을 반마다 조직을 해서 그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졸업식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학생이 사회를 보게 했거든요. 아이한테는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 되고 즐거운 체험이 돼서 (D중, L교사).

다. 자아성찰과 동료와의 관계 전문성

1) 자아성찰과 소통능력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으로는, 교사 스스로가 자신이 민주적인가를 자문해보고, 실천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조금씩 변화해 가려는 반성적 실천을 통한 자아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실 내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교사와 학생이 소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음껏 논의하고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열린 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동료 간은 물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비폭력 대화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저는 (교사가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전문성으로) 자기 성찰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돌아보고 나는 정말 그랬는가라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성찰이 맞다고 생각했어요(광주D초, O교사).

교실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논의하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열린 장들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학급, 우리 학년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할까? 이 과정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아!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연수도 할 것이고 교육도 할 것이고(C중, J교사).

교사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고 평생 말해 먹고 살 직업인데 대화라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내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소통의 부분을 제가 좀 더 깊게 들자면 대화법을 교사에게 정말 진정한 대화법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G초, B교사).

2) 동료교사와 관계성 회복과 협의문화 조성

교사는 대부분 자신의 교실에서 혼자서 일을 한다. 때문에 동료교사와의 교류와 상호작용은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물론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쉽지 않다. 교사가 동료교사와 관계 맺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실패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Feiman-Nemser & Floden, 1986)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심리적인 고립감이 생겨나고 동료와 상호 협력이 쉽지 않게 된다. 혼자서 일을 하게 되면 동료교사와의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기 발전의 기회도 줄어들 뿐더러, 혼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중압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보람과 성취 보다는 한계성과 자기 빈곤을 느끼고, 이는 상실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료 교사들과 파트너십 회복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영역의 상호 관계인 교직원 회의나 교사협의회는 대부분 교육청이나 교장으로부터의 지시사항이나 전달사항을 알리는 자리였고 구성원인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토론하는 장이 되지는 못하였다. 동료들과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교직 문화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집단 면담에서 민주시민교육 실현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는 교사들 간의 협의 문화 조성이 중요함을 공감하였다. 교사들 간 협의는

서로 배움을 주고받는 협력적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교사들 간의 동료성을 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사토, 1999; Roberts & Pruitt, 2003)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학교에서 항상 압박받고 평가받고 하는 생활 속에서 교사로서 삶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과 설계가 없었던 것에 대한 자기 빈곤과 상실감을 느낄 때 외롭게 나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동료 파트너십을 통해서 교사들이 새로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F중, L교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사 협의회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께서도 조금씩 말을 건네게 되고 다른 사람 생각을 듣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게 되고 의사소통하게 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 의견을 한 번 던져보게 되고요. 이런 경험치가 점차적으로 생활 속에서 묻어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C초, K교사).

민주적인 회의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회의하고 자발성을 키우고 선택권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주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 간에 서로 협의하고 토의하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B초, J교사).

라. 제도 개선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원칙이나 제도 또는 행정적인 측면 등 여러 방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전문가 집단 면담을 통해서 제시된 내용만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이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원칙 수립과 점검,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승진제도의 개선, 그리고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배려, 지역사회와의 연계,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1)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변화: 참여형 연수

지금까지의 교사 연수는 대부분이 강의식으로 이루어져 지식을 얻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교사가 직접 자신의 교실에서 실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집단 면담을 통해서 많은 교사가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른 형식의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 몇 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동아리 형식으로 모임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고, 연수프로그램 역시 교사가 연수를 통해 직접 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직접 참여하고 실천해보는 형태로 바꾸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교사들의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나 활동이 필요하고 또 (학교에서) 그럴 수 있는 분위기나 문화가 중요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시민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조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B중, K교사).

연수중에서 우리가 했던 강의 형식의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스터디 서클이나 교사 신뢰 서클⁴⁾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민주적으로 만든다고 봐요. 학교에서 워크숍 형식으로 하나의 어떤 결정을 해보는 과정을 민주적으로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게 (교사들을) 달라지게 만들 거라고 봐요(OO팀, H교사).

2) 승진제도 개선

관리자가 교사들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지금의 승진 제도는 구성원 간의 수평적인 관계보다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승진하려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윗사람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에서 수직적인 문화가 학교에 정착된 것은 당연해 보인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학교

4) 교사 신뢰 서클 : 교사의 마음 훈련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용의 글을 읽고 서로 나누고 소그룹과 전체에서 나누는 과정을 통해 가르치려는 의도 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을 말한다.

문화를 바꾸어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승진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는 교장 공모제 확대나 선출보직제도 등을 좋은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가장 큰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있는 것은 승진제도라고 봐요. 학교에서 교감, 교장의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문화에 젖어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나 자기 부서에 있는 젊은 선생님들을 자기 말에 따르게 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들도 윗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아랫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는 제도잖아요. 아랫사람의 평가가 중요하게 된다면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가 될 거라고 봐요(A중, K교사).

3) 헌신한 교사들에 대한 배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비전과 사명감을 가진 교사와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나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견은 변화를 위한 환경적 조건 8가지 중에서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Ely(1990)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사 이진 소극적인 참여자이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해준다던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상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등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내적인 보상이나 외적인 보상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교사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하는 유인가가 너무 없어요.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초과근무까지 하시면서 노력하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시대에 안 맞는다고 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 있는 사람들만 하게 되고 전혀 전파가 안 되거든요. 정말 고생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대가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해주어야 한다고 봐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E중, K교사).

4)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원칙 수립과 공유 필요

진정한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립된 원칙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현장에서 힘을 얻는 교육철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결하고 분명한 원칙들이 있어요. 프레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한 일을 잘할 수 있다. 너무 문장이 쉽고도 딱 와 닿거든요. 미국의 프리스쿨도 우리 학교는 아이들을 어떻게 볼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원칙이 있으면 좋겠어요(C초, K교사).

5)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과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면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야 함에 틀림없다. 요즘에는 지역사회나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프로그램 종류나 내용, 주체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찾았다 하더라도 학교 현실과 잘 맞지 않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상호작용을 통해 연계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필요한 것에 대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 자체가 총체적인 교육의 자원이므로 지역과 학교가 협력관계를 만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OO선생님이나 OO선생님은 (지역사회와) 인맥이 있으니까 그런 인맥들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데 실제 (일반 교사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고 싶지만 근데 지역사회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느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교사가 개별적으로) 개척해라 뚫어라. 그런데 광주에 이런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거든요(E중, K교사).

요즘에는 지역사회나 사회단체 이쪽도 교육프로그램을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학교에 잘 맞지 않은 프로그램도 많아. 학교도 밖을 잘 모르지만 밖도 우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주체인 우리(학교, 교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A고, L교사).

지역 사회가 총체적인 교육의 자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나 학교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이 현재의 수준이죠. 지역의 시민단체들이나 청소년 단체들이 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과 근본적인 이해 속에서 서로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F중, L교사).

6) 기관이나 시민단체 활용한 통합지원체제 구축

전문가들은 면담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 단체를 직접 초청하거나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은 물론,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타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야 유관 기관과 학교, 교사,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또한 직접적인 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광주는 민주화 운동의 본 고장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야 하나 아직까지는 그 연결고리가 거의 없거나 약한 수준이다.

학교만의 역량으로는 실행하기 힘들다는 것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실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학교)밖에 아이들이 양질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리(자원)가 많죠(광주D초, B교사).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체험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청소년 활동들을 활발히 하는 이런 단체들과 함께 이런 통합지원체제 좀 구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프라 망을 구축하면 좋을 것 같아요(광주D초, O교사).

광주가 시민교육하기에 좋은 여건은 있는 거 같아요. 인프라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내용은 5·18부터 되게 많은 데 그걸 학교와 시민사회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커넥터가 없어서 그러지. 기본적으로 지역의 특성상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광주D초, O교사).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적 제언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성 현황과 전문성 제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유사성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왜 시민교육 대신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본 후,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몇 명의 국내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 개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현 시점에서 왜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였고, 민주시민교육의 원칙과 민주시민교육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1)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에는 수업, 학생과의 관계, 학급 운영,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 등에서 준비가 부족한 교사, 2) 서로 간의 소통 부족과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동료교사, 3) 약화된 학급자치와 학생회로 드러난 무기력한 학생자치, 4) 아직도 수직적이고 경직되어 있고, 학생이 주인이 아닌, 바빠서 여유가 없는 학교 문화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제고방안에서는 1) 학생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학생에 대한 이해, 공감과 배려와 함께 참여와 권리 보장,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하게 도와주는 등의 **교사의 학생과의 관계 전문성**과 2) 수업에서의 학생 참여와 동아리나 자유학기제를 활용하는 방법, 학급회의와 학생회 활성화 등 **수업/학급/학교 운영의 전문성**, 3) 자기성찰과 소통 능력이나 **동료교사와의 관계 전문성**, 4)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참여형 연수와

승진제도 개선,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배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원칙 수립과 공유,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유지 등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2. 정책적 제언

광주교육의 지표인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모든 교육 가족이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고 또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체가 교사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능력과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민주시민교육 방향과 비전 공유

학교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더 이상 지식의 전달이 아닌 학생들을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르며 필요한 방향 전환이고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변화와 실천의 주체인 교사들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익숙하지 않음과 낯섦으로 인해 변화를 두려워하며 심지어는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화의 주체이어야 하는 교사들이 정작 변화를 두려워하고 저항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 방향과 **비전의 공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전달되거나 모든 교사가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변화의 핵심 주체인 교사와 비전의 내용을 함께 계획하고 공유하는 과정 없이 진행하게 되면 교사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만 다가와서 실패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중앙에서 내려온 많은 교육정책 관련 사례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민주적인 학교로의 변화 필요성을 동료 교사들과 함께 논의하며 비전을 세우고 나누는 과정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Michael Fullan(1993)도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비전 공유이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리더와 조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세우고 그 세워진 비전을 어떻게 구성원들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차후 연구를 통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교사를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야 한다는 비전을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변화를 위한 긍정적인 출발일 뿐이다. 비전 공유 이외에도 학교 조직과 문화에 대해 점검과 진단, 분석 등을 통해 변화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비전공유와 함께 조직의 현실을 진단(Ellsworth, 2002)하고,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환경적인 조건 조성(Ely, 1990),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 파악(Zaltman & Duncan, 1977), 변화 실행자에게 필요한 역할과 지위 분석(Fullan, 2001), 변화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변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Rogers, 1995)과 수용자의 변화 실행 단계 이해(Hall & Hord, 2006) 등 학교 조직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변화 촉진자와 수용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또한 차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갈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 능력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으로 어느 조직에서나 볼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갈등을 잘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데는 서로 부딪히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실패한 경험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적인 갈등은 정상적인 민주적 질서의 일부이며 사회 진화의 핵심 동력이다(장은주, 2014). 교사는 조직 문화나 제도 등의 변화 과정을 잘 이해해야 하고 모든 변화의 과정에서 저항과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갈등의 기능을 잘 이해하여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장집(2011)도 갈등에 기초하고 갈등을 활용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갈등의 긍정적인 기능은 첫째,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며, 감추어진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근본적인 해결 방법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개방적인 상호관계를 조성해준다. 조직 내에서 소집단들이 서로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상호간의 갈등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조성될 수 있고, 토론의 활성화로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일으키게 한다. 셋째, 갈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교사는 물론 학교 조직의 발전이 가능하다(Hustedde, Smutiko & Kapsa, 2004). 물론 갈등의 부정적인 기능도 존재한다. 교사는 갈등의 이러한 기능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자아성찰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교사가 민주적이지 못한 현실 속에서 먼저 교사 자신이 민주적인가를 자문해보고 스스로 조금씩 변화해 가려는 **반성적 자아성찰**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전문성으로 제기되었다. 수업이나 학급과 학교 운영에 있어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성찰하고 반성적 사고를 하거나 동료와 함께 문제를 해결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라. 학생과의 소통 능력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으로 학생과의 소통능력 신장이 중요하다.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 대해주고 1) 학생에 대한 공감과 배려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2)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주어야 한다.

1)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감과 배려

먼저 교사가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각을 극복하고 동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과 배려와 함께 민주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교사 자신이 지속적인 교육과 민주적인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지적 수준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교사 본인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교사 양성기관 교육과정에 봉사활동이나 봉사학습⁵⁾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관련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예시) 교육청 각종 위원회 학생위원 참여비율 제도화

학생회 학교운영 참여 보장: 학교규칙 제·개정,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보장 등

2) 자존감 키워주기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사들은 먼저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학생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존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항상 경쟁 속에서 비교 당하며 살아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며 자존감도 낮아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인 자존감은 민주시민교육을 실천 하기 위한 기초체력과도 같은 것인데 현재 우리 교육현장의 학생들은 이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것이다. 학생 개개인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는 낮아진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은주(2015)도 민주시민교육은 자존감을 가진 시민적 주체를 세우는 것이어야 하며 시민적 자존감은 민주시민교육의 전제이기에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돕는 데서

5) 봉사학습의 목적은 봉사를 하면서 자기성찰과 이타적 체험을 갖게 하는 동시에 봉사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과 정치의식을 갖게 하는 의종의 과제를 달성하도록 한다(심성보, 2011, p. 12).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배워 와서 교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욱 확대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마. 수업/학급/학교 운영의 전문성 신장

1) 수업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민주시민교육 수업 방식은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통해 참여해야 한다. 수업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들어주고 학생이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천성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은 토의와 토론 수업, 조별 활동을 통한 협동 학습, 실천하면서 배우는 봉사 학습, 일상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가치, 태도를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예시) 토론수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교육과정 재구성, 토론수업에 대한 교사 전문성 신장 등

2) 학급 자치에 대한 역량 강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또 다른 교사의 전문성으로는 학급 자치에 대한 역량이며 이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학급자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와 자치활동의 역할에 관해 훈련되어야 하고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학급 자치에 대해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학급을 자치적으로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학급회의의 부서체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끼리 협의를 통해 학급에서 필요한 활동 내용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결정된 활동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담당 부서 및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민주 시민

으로서 기본 자질을 기를 수 있는 학급자치의 개념에 대한 이해(박병량, 2003)와 학급자치조직의 부서체계에 대한 이해와 학급회의의 역할에 대한 이해 등 **지식적인 전문성**을 키우는 것과 함께 실제로 학급자치를 직접 실천하면서 배우는 학급자치 **운영의 전문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학급이라는 자치 조직 안에서 정기적인 학급회의 시간을 마련하여 자신의 의사표현을 해보고 급우들과 함께 토론과 협의과정에서 갈등하며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호이해, 공감, 존중과 같은 민주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가 가이드 역할을 하고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교사의 학급자치 실천 관련 전문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학급자치 관련 지식 습득과 실천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한 학교 단위와 교육청 차원의 논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시) 학급회의 운영 정례화(월 1회 이상)

학급평의회(독일)

3) 학생자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학급자치 이외에도 학생들의 자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 등의 공동생활을 통해서도 협동과 배려, 자율성과 소통 등을 체득할 수 있기에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회장 선거 자체도 좋은 실천 방법이며, 학생회 고유의 공간과 예산을 주어서 학생들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여 학생회 자치 활동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학생회실이나 동아리실의 물품도 아이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실천 방법일 수 있으며, 학생회에서 시험 시기, 수련회, 수학여행 시기, 졸업식, 체육대회 등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게 해보는 것도 좋은 실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학생 다모임(경기도 혁신학교)

공동체회의(경남 태봉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관련 예산 편성 의무화

학생회에 학생자치 관련 예산 운영 권한 부여

바. 동료교사와 소통과 협의 문화 조성

민주시민교육 실현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는 동료 간은 물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폭력 대화법이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한 실천적인 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사들 간의 협의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 교사들 간 협의는 서로 배움을 주고받는 협력적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하고, 자신의 수업이나 생활지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학교의 공동체 형성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협력의 대표적 유형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수업 나눔 활동 등은 교사들 간의 협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좋은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교사 협의 활동은 자발성과 자율성이 핵심이다. 동료 교사들과의 협의 체계 구성이 교사들의 자발성에 의해 조직되지 않고 공문을 통해 접하게 되면 또 다른 부담으로만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행 하더라도 일선학교에 확산 보급 하려고 할 때에는 관리·감독 위주의 행정 처리를 지양하고 교사들이 자발성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사. 제도 개선

1)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변화: 참여형 연수

지금까지의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주로 강의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강의식 프로그램은 지식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교사가 직접 교실에서 실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주의 지식과 가치뿐만 아니라 태도까지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 방식에 있어서 다른 형식의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 일방적인 전달 형식의 연수보다는 수평적이고 열린 방식으로 교사가 직접 조작해보거나 실천을 통해 배워 실제 수업에 활용이 가능한 참여형 연수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김성수 외(2015)도 교사연수의 경우 실제 교사들이 수업과 활동에 활용 가능한 체험, 참여형 연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장은주 외(2016)도 교사 연수는 이론적

인식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실천 모델을 체득하는 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몇 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동아리 형식으로 모임을 운영(예: 수업 나눔)하는 방식도 좋을 것이다.

2) 승진제도 개선: 교장 공모제나 교장선출보직제

교장자격증제는 25년 경력, 근무평정(근평), 부장교사 7년 경력, 연수 및 연구점수, 벽지학교 근무 등의 가산점을 합해서 대통령이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수십 년간 시행되고 있다. 관리자가 교사들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지금의 승진제도는 구성원 간의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자연스럽게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게 된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승진하려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윗사람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수직적인 문화가 학교에 정착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학교문화를 바꾸어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승진 방식의 임용보다는 공모를 통한 임용 방식인 교장 공모제 확대나 선출 보직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장공모제를 확대 실시하게 되면 교사와 관리자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러한 평등한 관계 형성은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배려

입시 관련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담과 교과서 진도 위주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수직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학교 문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동료 교사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에 헌신하기가 쉽지 않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학습연구년제’나 상위 학위 취득 기회 제공, 교내외 활동에 대한 시수 인정 등 교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예시) 심리적 보상: 학생 성장, 공식적인 인정

전문성과 능력 발휘할 기회 제공

- 활동 내용 담은 책 발간, 의사결정 참여, 자유로운 직무수행 등

교내외 활동에 대한 시수 인정
자생적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책 마련
프로젝트 수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권 부여
학습 연구년제 우선권 부여
상위 학위 취득 기회 보장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성 현황을 파악한 후 전문성 신장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답하고자 하였다.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은 핵심 영역이기는 하지만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위해서는 학교의 문화나 조직 구조, 학교 환경 등 여러 영역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표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만을 별도로 구별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하나의 핵심 축을 이루는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 현황 분석과 제고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데서 나름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가 미진하여 다루지 못한 영역이 많지만 향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교사의 전문성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영혜, 양승실, 유성상, 박현정(2011).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 2011-09. 한국교육개발원.
- 강 석, 나판수, 문선희, 오화진, 장선희, 정창홍, 함형인(2017). 2017년 민주인권친화도 실태조사. 광주교육정책연구소. 광주광역시교육청.
- 김성수, 신두철, 유평준, 정하윤(2015).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정책 2015 위탁-9).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 김희은 외(2010). 시민교육 현장 지침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고선규(2015). 시민, 정치교육의 현황과 과제: 선거연수원 사례.
- 박병량(1993). 학급경영. 서울: 학지사
- 신형식(2012).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3(2), p. 29-50.
- 심성보(2011). 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살림터.
- 심성보(2014).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인권선언 제66주년 기념 인권교육 토론회 자료집. 광주광역시교육청.
- 심성보(2016).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실천 그리고 우리의 과제. 2016 강원교육 국제심포지엄 자료집(2016.8.27.)
- 염경미(2017). 비사회과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수행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은영(2010). 한일 초등교사의 시민의식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가영(2016).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및 과제.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북교육정책연구소.
- 장은주, 홍석노, 김상무, 이경옥, 정경수(2014). 왜 그리고 어떤 민주시민교육인가?: 한국형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 장은주(2015). '한국의 근대성과 민주시민교육: 시민적 주체의 형성이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2015 민관합동 특별학술대회 자료집.
- 장은주, 심성보, 박재영(2016). 민주주의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경남을 중심으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 장은주(2017).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도서출판 피어나.
- 주삼환(1998). 학내 동료장학 방법. 교육발전논총, 20(1), 47-64.

- 최장집(2011). ‘민중에서 시민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돌베개.
- 한승희 외(2003).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쟁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
- 홍윤기 외(2009). 민주청서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사토마나부(2001). 교육개혁을 디자인한다. (손우정 역) 서울: 공감. (원서출판 1999)
-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이홍우 역(1996).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Ellsworth, J.(2002). *Surviving change: A survey of educational change models*. Syracuse, NY: ERIC Clearinghouse on Information & Technology.
- Ely, D. P. (1990). Conditions that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technology innovations. *Journal of Research on Computing in Education*, v. 23, 298–305.
- Engle, S. H. & Ochoa, A. S.(1988).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London: Columbia University Press.
- Feiman–Nemser, S. & Floden, R. E. (1986). The culture of teaching. In (Ed.). Wittrock, M. C. (1986).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3rd Ed.). pp. 505 – 526. Macmillan Publishing Co.
- Fullan, M.(1993). *Change Forces: Probing the Depths of Educational Reform*. Burgess Science Press, Great Britain.
- Fullan, M.(1995). The school as learning organization: Distant dreams. *Theory into Practice*, 34, 230–235.
- Fullan, M. (2001). *The new meaning of educational change*(3rd 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Greenberg, J., & Baron, R. A. (2000). *Behavior in organization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all, G., & Hord, S.(2006). *Implementing change: Patterns, principles, and potholes* (2nd ed.).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Hustedde, R. J., Smutko, S., Kapsa, J. J.(2004). *Public Conflict Resolution: Turning Lemons to Leminade: A Training Workbook*

- for Extension Educators and Community Leaders on Public Conflict Resolution, Southern Rural Development Center, SRDC Series, #221.
- Noddings, N.(2013). Education and Democracy in the 21st Century. 심성보 역(2016). <21세기 교육과 민주주의>. 서울: 도서출판 살림터
- Rogers, E.(1995). Diffusion of innovation (4th ed.) New York, NY: Free Press.
- Roberts, S. M. & Pruitt, E. Z. (2003). Schools as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Collaborative Activities and Strategie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Thousand Oaks, California: Corwin Press.
- Zaltman, G., & Duncan, R.(1977). Strategies for planned change. New York: Wiley.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인 쇄 일 : 2017년 12월

발 행 일 : 2017년 12월

발 행 인 : 장 휘 국

발 행 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전화 : 광주교육정책연구소 062) 380-4545

팩스 : 062) 380-4549

인 쇄 처 : (주)세종커뮤니케이션
